

GO THROUGH

칼럼쓰기를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나의 짧은 지식과 부족한 문장력으로 논리적이고 남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다. 이번 주는 세미나 발제까지 있다. 아 머리가 터질 거 같다.^^ 그런데 이런 나의 마음과 머리를 뺄 뚫리게 만드는 문장이 있었으니,

도를 구하는 것은 하나의 얽매임이다. 아니, 치열한 얽매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깨달은 후에 돌아본다면야 깨달음은 평온한 경지겠지만, 그런 평온함을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행해야 하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그 평온한 세계로 쉽사리 들어갈 수는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쯤은 이런 모순 속에서 갈등하고 투쟁하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광기어린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평온한 세계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도를 구하는 자의 운명이며, 붓다도 이 길을 힘차게 매진해 갔다.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나카무라 하지메·타나베 쇼우지 지음/이미령 옮김/솔바람/63-63쪽)

하하하 나의 머리뜰음이 당연한 코스였던 것이다. 그런 고행(?^^)이 없이 평안한 세계-고수?-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곰뻐이 왜 글쓰기가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실히 느끼게 해준 문장이었다. 글쓰기나 깨달음이나 치열한 투쟁의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전법자 붓다는 높은 곳에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수행자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입장이었다. 붓다 교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자이기보다 동료이며 벗이었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함께 반성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청정행의 길동무였던 것이다.(같은책, 37쪽)

아무래도 이 책은 대중지성을 공부하는 우리들을 위한 맞춤형 책인 거 같다. 29세 출가한 이후로는 깨달음에 가 닿으려고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깨달음 이후에는 그 깨달음을 설파하느라 여생을 보낸 붓다의 삶은 대중지성에 입문하고 글쓰기의 고행을 하며 깨달음에 가 닿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에 닮아 있어서이다. 물론 붓다의 어마어마한 위대함에 비견될 수 없는 우리의 감녕이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은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으로서 아주 짝금은 비슷 하달까.^^;; 우리가 힘든 과정 중에서도 대중지성 공부의 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도반들에게서 얻는 점과, 우리들이 도반들과 글쓰기 토론을 할 때 서로 힘을 북돋아 같이 반성하며 길동무로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도 많이 닮아 있다.

인간은 근원적인 생존욕을 중심으로 자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존욕에서 일어난 온갖 욕구와 바람에 의해서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따라서 현실이란 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고 있지 않다. ... 자기중심을 쳐부순다면 지금까지 고뇌하고 있던 자기는 소멸한다. 자기가 소멸하면 허구로 이루어진 세계(현실)는 괴멸해 버릴 것이다. (같은책, 66쪽)

역시 우리들을 위한 맞춤형 책이다.^^ 글쓰기 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구축한 자기중심의 세계의 모순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글이 막히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전제를 허무는 것, 자신이 구축해 놓은 세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일 것이다. 해체와 재구성! 깨달음의 순간 붓다 내부에서 이 생존욕의 중심이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글 쓰는 과정에서 섬광처럼 무언가 확 지나가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벽돌의 집(현실의 세계)을 파괴하는 순간 다음 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깨달음과 글쓰기는 닮아 있고 그래서 글쓰기가 가장 좋은 수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듯하다.

처음 설법은 몇 주 동안, 어쩌면 한두 달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일방적으로 붓다가 설했다기보다 다섯 명의 수행자가 붓다에게 질문을 던지고 붓다는 대답하는 대화 형식을 띠었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섯 사람은 서서히 교화되었으리라 생각한다. (90쪽)

붓다가 고행을 같이 했던 다섯 명의 수행자와 가졌던 설법이 우리가 하는 세미나를 떠오르게 했다. 이 문장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다. 서로가 느낀 점, 궁금한 점을 얘기하면서 각자 모르고 있던 부분을 대화로 알아간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내가 말하려는 게 맞는 건가, 나는 말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나, 스스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깨달게 되는 게 있고, 정리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나의 말실력도 늘며, 나의 말로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으니 이 발제문을 읽고, 남은 학기동안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얘기하여 세미나가 더욱 풍성해 지길 바래 본다. ^^

제 작년부터 감이당 대중지성을 통과하면서 내가 줄곧 했던 말이 'go through'였다. 1년의 긴 시간동안 공부하고 그것을 글쓰기로 표현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도반들에게나 나에게나 했던 말이었다.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며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 꼭 치열하게 뚫고 지나가는 'go through' 여야지만 한 단계씩 깨달음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도를 구하는 자의 운명인 것이다.^.^ 그러니 나의 짧은 지식과 부족한 문장력을 탓하지 말자. 머리 뜯음과 머리 터짐, 답답함이 있어야만 나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 될 것이고, 그것이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go through'란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을 인용하며 발제를 마쳐 본다.

매순간마다 가장 어울리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도(中道)이다. 중도의 '도'는 어디까지나 실천의 도이며, 선택의 도이며, 비판과 반성의 도이기도 하다. 양극단의 집착을 떠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앞서 말한 청정행과도 통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92쪽)

덧붙이기] 지금 읽고 있는 『천개의고원』중에서 글쓰기 관련이 있어서 첨부해 봅니다.

- 글을 써라. 리즘을 형성하라, 탈영토화를 통해 너의 영토를 넓혀라, 도주선이 하나의 추상적인 기계가 되어 고른판 전체를 덮을 때까지 늘려라. "우선 너의 오랜 친구인 식물에게 가서, 빗물이 파놓은 물길을 주의 길게 관찰하라. 비가 씨앗들을 멀리까지 운반해 갔음에 틀림없다. 그 물길들을 따라가 보면 너는 흐름이 펼쳐지는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따라 너의 식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식물을 찾아라. 거기 두 식물 사이에서 자라는 모든 악마의 잡초들이 네 것이다. 나중에 이 마지막 식물들이 자기 씨를 퍼뜨릴 것이기에 너는 이 식물들 각각에서 시작해서 물길을 따라가며 너의 영토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1} (『천개의고원』,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새물결, 28쪽)

{1} 『돈 후안의 가르침』,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청하, 88쪽

- 리즘은 사본이 아니라 지도이다. 지도를 만들어라. 그러나 사본은 만들지 말아라. .. 지도가 사본과 대립한다면, 그것은 지도가 온몸을 던져 실재에 관한 실험 활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책, 30쪽)